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뿌리

特許制度를 처음 提議한
池錫永 선생

高宗19年 8月 上疏文 올러

우리나라에서 特許制度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넘는 1882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高宗 19年 8月 23日 池錫永의 上疏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池錫永은 이 上疏文에서 나라가 發展하고 富強하기 위해서는 政府에서 하나의 院을 設置하여 새로운 書籍과 各國에서 使用하고 있는 새로운 機器들을 購入 備置하여 有能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科學技術 교육을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才能이 있어서 機械를 만들거나 發明하는 者에게

는 專賣特許權을 주도록 하고, 또 書籍을 著作刊行한 者에게는 出版權을 주도록 하여 科學技術을 振興시켜야 한다고 그 實行方案까지를 提示하여 가며 主張하였다.

高宗은 이 上疏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議政府에 내려 施行토록 하라고 命令하였다. 이 上疏는 特許制度에 관한 것 만이 아니었다. 이를 좀 요약하여 말하면 나라가 富強하기 위해서는 世界에 눈을 돌려 西洋의 科學文明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선 필요한 科學知識과 技術을 배우고 이를 開發하여야 한다

는 主張이었다. 이는 當時 開化主義者들의 간절한 念願이었으며, 또한 당면한 國家的 우선 課題였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 提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처음 있었던 이 制度의 公式論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러나 池錫永의 上疏에서 거론된 特許制度가 그후 한 制度로서 施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當時 政府가 上疏에서 提案하는 科學技術 教育을 實行에 옮기고 또 特許制度를 實施하였다고 하더라도 時期的으로 보아 그 實效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우리나라 政情은 그리할만한 安定된 것이 못되었다. 다시말하면 國家經營에 있어서 一絲不亂하게 統一된 意志를 가지고 밀고 나갈만한 政府形便이 아니었다. 이때의 政局은 來日을 豫測하기가 어려웠으며, 갈수록 政局은 갈피를 못잡고 昏迷를 거듭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1910年 庚戌年을 맞게 된다. 池錫永 上疏에 있어서 그 時代의 背景이 설혹 特許制度를 實施하기에는 아직 時期尙早였다 할지라도 池錫永을 위시한 新進開化派들이 나라의 近代의 發展을 위하여 國民精神의 近代化와 西洋의 機械文明에 의한 近代化를 얼마나 갈망하고 또한 초조하였던가를 우리는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韓國特許制度史(特許廳 발간)에서>



수 서울대병원에 있는
池錫永 선생 동상